

CJ제일제당, 바닷물로 '100% 생분해 플라스틱' 만든다



내년 인도네시아에 '바이오공장' 100% 해양 생분해 'PHA' 주력

연간 5천톤 규모 대량생산 계획 유럽 등서 5천톤 이상 선주문



CJ제일제당 PHA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CJ제일제당이 독보적인 발효 기술의 초격차 경쟁력을 무기로 미래 성장성이 매우 밝은 '화이트 바이오(White Bio)'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3일 밝혔다. 화이트 바이오는 식물 등 생물 자원을 원료로 산업용 소재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을 뜻한다.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사업분야로 그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00% 해양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HA(Polyhydroxyalkanoate)'를 화이트 바이오

사업의 주력 제품으로 삼아, 내년 인도네시아 파수루안에 있는 바이오 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연간 5천톤 규모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 공장의 주력 품목인 아미노산과 'PHA' 생산에는 '미생물 발효 기술'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

특히, 본생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초기 양산 물량을 뛰어 넘는 5천톤 이상의 선주문을 해오면서 향후 안정적 물량 확보와 함께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해양 생분해가 가능하고 기존 소

〈생분해 소재별 특징〉

소재	바이오 함량(%)	특징
PLA	100	투명성 우수, 파손에 약하며 낮은 생분해도(자연 생태계에서 생분해 불가), 식품용기 등 사용, 100% 바이오 함량. *현재 가장보편화된 생분해 소재
TPS	100	잔분 유래, 토양 생분해 까지 가능하나 강도가 약함, 비닐봉투 등에 사용, 바이오함량 100%
PBAT	0	토양생분해 가능하고 유연성이 좋으나 100% 석유계 소재로 바이오 함량 0%
PHA	100	유일한 해양 생분해 소재, 100% 바이오 함량, 다양한 용도 적용 가능. *전 세계 극소수 기업만 생산중

재의 단점을 극복한' CJ제일제당의 PHA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PHA'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소재다. PHA에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먹고 세포 안에 쌓아놓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과 해양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Polylactic acid)가 특정한 공정을 거쳐야만 분해된다. 반면, PHA는 바닷물 속에서도 100% 생분해되는 세계 유일의 소재다. 현재 100%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기술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극소수 기업

만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우선 올해 1조원, 향후 5년 내 약 3배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노린다. 유럽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규제가 늘고, '환경 보호 = 인류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소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 비닐로 시작해 빨대와 페트병, 포장재, 나아가 섬유에 이르기까지 생분해 소재의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기반 확보에 나서면서 향후 시장 확

대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도 세웠다. 코카콜라가 2030년까지 전체 페트병의 50%를 친환경 원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나이키도 친환경 재생 소재로 만든 운동화를 출시하는 등, 수백 조 원에 이르는 1회용/범용 플라스틱 시장이 친환경 소재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PHA 외에도 친환경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화이트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R&D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 혁신 기업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PHA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CJ제일제당이 '비비고'와 '햇반'으로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했듯이, 'CJPHA'로 글로벌 산업 소재 시장의 패러다임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소상공인 매출 171% ↑... 제주에 '쿠팡효과' '빼빼로데이' 앞둔 편의점, 마케팅 '후끈'

온라인 진출 돕기 '힘내요 대한민국' 마케팅·광고 1.4억 규모 예산 투입



쿠팡과 제주도의 협력으로 올 상반기 쿠팡과 거래하는 제주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 전년대비 171% 성장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았지만, 쿠팡을 통한 온라인 진출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

쿠팡과 제주도는 제주 지역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협업을 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지역 업체의 상품을 쿠팡이 미리 구매하여 판매를 보장해주는 기획전이다. 쿠팡과 제주도는 제주 지역 중소상공인의 상품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에 약 1억4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쿠팡과 제주도의 협력으로 하우스갈뽕, 오메기떡, 블루베리 등 제주 지역의 우수한 상품들이 전국의 고객을 만났다. 김정열 제주농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학교 급식이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돼 갈일이 막막했다"며 "쿠팡을 통해 올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100% 판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영농조합법인인 쿠팡과의 거래를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온라인에 진출했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쿠팡은 제주 지역 판매자들이 최소 비용으로 온라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쿠팡을 통한 온라인 진출을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지속적인 투자로 전국 단위의 거대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제주도에 로켓배송센터를 오픈해 제주도민들도 빠르고 편리한 로켓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S25 1200개상품 프로모션 30종 CU 인스타 라방, 컬러버 상품 준비 BYC 온라인몰서 '빼빼로 패키지' 이마트24 '달콤한 상품' 이벤트 등 세븐일레븐 단독 '달고나 빼빼로'



BYC 빼빼로 패키지 /CU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은 물론, 각사별로 차별화한 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GS25는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축소된 소비 활성화 및 외부 활동 지원을 위해 GS25가 역대 최대 혜택을 제공하고자 상품 1200여개, 경품 3만여개, 프로모션 약 30종을 준비한 '힘내요 대한민국 하나더데이'를 11월 한 달간 진행한다.

특히 온택트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자 온라인 커머스 업체와 제휴를 통한 행사도 진행한다. 배달 전문 업체 요기요를 통해 11월 6일~11일에는 하나더데이 세트 상품 구매시 5000원 가격 할인 행사를,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제휴를 통해 해태 포키 구입 고객 대상으로 1111명에게 추첨 경품 행사를 각각 진행한다.

업계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콜라보 상품이 큰 인기를 끈 올해 트렌드에 맞춰 CU는 이번 빼빼로데이 상품들 중 20여 가지를 영화, 게임, 의류 등 다양한 업계와 콜라보 상품으로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BYC 빼빼로 패키지'가 있다. 해당 상품은 빼빼로와 함께 BYC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1% 할인쿠폰과 핫팩을 동봉했다. 구성은 두 가지로 빼빼로 3갑과 11% 할인쿠폰 패키지, 빼빼로 6갑과 11% 할인쿠폰, 핫팩 패키지다.

이마트24는 11월 11일과 모양이 비



GS25점포에서 텔레토비들이 자신들의 상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슷한 빼빼로를 주고 받는 날로 알려진 빼빼로데이의 개념을 확장해 달콤한 상품, 1차 모양 상품 등에 대해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혜택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11월 말까지 이마트24에서 롯데제과 과자류 상품 결제 시 모바일앱(이마트24) 통합바코드를 스캔하면 앱 이벤트 페이지에 룰렛 추첨권이 제공된다. (1인 1회 한정)

세븐일레븐은 차별화 상품으로 '달고나 빼빼로'를 단독 판매한다. 올해 가장 핫한 음식이었던 추억의 과자 달고나를 활용한 상품으로 진한 달고나와 화이트 초콜릿이 막대과자에 듬뿍 코팅됐다. 달고나 특유의 달달한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인기 캐릭터 '미니언즈'와 콜라보해 미니언즈 캐릭터 선물이 포함된 빼빼로 세트도 단독으로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정리·수납용품 50% 할인

10월 옷장 정리용품 매출 86% 신장



모델들이 홈플러스에서 수납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납용품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10월 옷장 정리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냉장고 정리용 밀폐용기 매출은 70% 신장했다. 회사 측은 '정리' 트렌드와 여름 용품을 정리하고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가 맞물려 수납용품 매출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기네스 '스타우티' 프로모션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계 판매 1위 스타우티 브랜드 기네스가 오는 11월 15일까지 맥주 거품 위에 할로윈 콘셉트의 사진을 프린트해 제공하는 '기네스 스타우티'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전국 100여 개의 기네스 스타우티 행사 매장에서는 맥주 거품 위에 붉은 색의 할로윈 콘셉트 사진을 프린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효정 기자

